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07호 현대불교  
2008년 11월 26일(음력 10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가지세요!

### 마음 안으로 똑바로 들어가려면

**질문:** 저는 이번 수계 법회에 참석해서 또 연비를 받았습니. 제 팔에서 피어오르는 환내음을 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팔만경설은 저렇듯 서늘 퍼렇게 마음의 도리를 설해 주고 있는데 물질에 꼬달리고 관습과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한심해서 말입니다. 정말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발원이 세워졌습니다. 스님,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마음 안으로 똑바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설하여 주십시오.

**답변:** 팔만대장경을 보기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 죽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봄이면 피고 또는 늦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그러는 게 있는가 하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좀더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은 됐으나 아주 100% 인간이 돼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탄생시켜서 놓으면 그냥 인간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100% 어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많지만 그 중에도 완전히 인간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될 뻔한 분이 있고, 아직도 한창 자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도 견성한 것은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숨을 녹이고 그레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알기만 하면 건곤 도야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목마른 데 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둘 아닌 도리를 알았으면 둘 아니게 나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것이 똑바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나 전자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것은 모두가 틀려 넘어갑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부 틀리고요. 여러분 현재에 사시면서요 그러시죠.

그와 같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선(行禪)이라고도 하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니까요. 골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구(活句)라고도 합니다. 우리



그림 · 최주현

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짙잖아 하더라도 삼세(三世)를 돌아가면서 이 모든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계, 우주 만물이 자체는 아마 '팔만대장경은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왜? 팔만대장경 자체가 그냥 고정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글자로 보이거든요. 글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 뒷면에, 백자의 뒷면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너머 세계가 있고, 서방 너머 세계가 있고, 남방 너머 세계가 있고 모두 이렇게 있듯이, 이 너

머 세계가 다시 또 있고 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직결로 들어가지 못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하고 경을 읽어서 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지만, 문이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없고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부터 알라'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나로부터 생각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끌어 가는 나의 선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놓으라니까 "다 놔지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왜 다 놔지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모두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둘이 아니게 만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옮겨 된 것도 자기가 한 거, 웃게 한 것도 자기가 한 거, 즐거운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슬픈 것도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있으니만 된 겁니다. 그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나로부터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가 하는가? 그래서 자기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 이런 거구나!' 자라 가지고 '아! 세계는 이런 거구나!' 또 어른이 돼 가지고 '아! 세계는 우주화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움켜쥐려고, 보고 들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아닌 자기가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기 그림자와 자기가 서로 싸운 겁니다. 둘 아니게 싸운 거죠. "너는 내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가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알맹이 아니야?" 하고 말합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지금 공부해 내려가는 그 모두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해 주는 것도 없고, 남이 주는 것도 없고, 헐어 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가지시고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를 아주 알게 생각을 하고 나는 빼놓고 부처님을 위에 모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거는 백날 가도 부처님 속에 같이 한자리를 못합니다. 알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나와 풀 아니게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자기 조상을 상봉을 한다면 바로 그게 견성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성불이요.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응신이 돼서 나쁠 때, 그때에 바로 열반경까지, 구경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말하다 말고 저 넘어갔습니다. 말하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자기도 웃어도 자기도, 못해도 자기도 잘해도 자기도, 망해도 자기도 승화가 돼도 자기도요. '몽땅 날려버려야 한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본래 몽땅 놓고 가는 겁니다. 왜냐? 내 몸속에 그렇게 자생종생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같이 더불어 들어가니까 그놈의 게 전부 공(空)했죠, 네? 혼자 하는 게 한 알맹이도 없어요. 혼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거는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얻어야 다 줄 수가 있는 거지 다 얻지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배우지를 못해서 공부를 모릅니까

**질문:** 저는 선원에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노보살입니다. 그런데 항상 공부를 하라고 그러셔도 배우지를 못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아파 가지고서 자주 나오질 못합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알고 가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변:** 선원의 스님네들한테 자주 와서 배우세요. 자주 나오시다 보면 다리를 들어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이따금씩 그저 좀 있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들어다보고 그냥 훌쩍 가고 그러니 될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리가 부러지든 성하든, 한번 내가 지극하게 그걸 배워 보겠다 하고 자주 와지면요. 한 다리 종종대 이렇게 올려놓지 못한 게 또 한 다리 올라가고 또 한 다리 올라가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 아시죠? 나무! 나무뿌리가 있으니깐 나무가 살고 있죠? 그 나무는 땅의 뽕뽕이요, 그 뿌리는 나무에 달려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란 이름만 알면, 그걸 뿌리라고 생각

26면으로 계속

##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염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봉사과 범당봉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통도사발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협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름, 비진,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편마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한),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경력중장(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癩,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 우주의 기운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5행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 단번에 아는 남·녀 궁합 비법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강
-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2. 13(토) 오전 9시부터 ~ 12. 14(일) 오후 1시까지 (12월 12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 (유왕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